



## ART

## 21세기의 여성 예술가

Writer 호경윤

올가을의 미술계는 국내외와 장르를 불문하고 여성 예술가의 약진이 눈에 띈다. 트런디한 감각을 중시하는 요즘 관객에게 특별한 감성은 물론 프라이드까지 채워줄 여성 예술가들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최근 명품 패션 브랜드 덕에 대중에도 잘 알려진 바버라 크루거(Barbara Kruger)는 일반적인 미술가의 경력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다. 1945년 미국 뉴저지주 뉴워크에서 태어나 뉴욕의 파슨스 디자인학교에 진학했고, 이때 페미니즘 여성 사진가로 유명한 다이앤 아버스(Diane Arbus)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크루거는 졸업 직후 잡지사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10여 년간 근무했으며, 패션 잡지 <마드무아젤(Mademoiselle)>의 수석 디자이너를 역임했다. 그러다 1969년 조음 미술가로서 창의적인 작업에 몰두했고, 1977년부터 확대해서 호릿해진 단색조의 사진 이미지에 짧지만 강렬한 표어적인 문구를 덧붙이는 본인만의 작품 세계를 발전시켰다. 아시아 최초 개인전으로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Barbara Kruger: Forever>에는 1980년대부터 40여 년간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으며, 한글로 설치된 신작 '무제(충분하면만족하라)'와 '무제(제발웃어제발웃어)'가 처음 공개됐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2017년 작 'Untitled(Forever)'는 아래쪽 전시장 한 방을 가득 채운 대작이다. 전시되는 정소마다 크기가 바뀌는 이 작품은 이번에는 높이 570cm에 세로 2,870cm, 가로 1,830c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전시장의 모든 벽면을 가득 채운 흑백의 텍스트 중에서 정면에 가장 큰 글씨로 적힌 'YOU'를 중심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자기만의 방>에서 인용한 문구가 타원형의 블록 기둥에 비친 것처럼 왜곡해서 디자인되어 있다.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 양혜규의 개인전 <사기 2000년(이 오면)>이 국제갤러리 K3에서 열린다. 2015년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개최된 전시 <코끼리를 쓰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 이후 4년 만의 국내 전시이자 국제갤러리에서 처음 여는 개인전으로 미술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지난 6월부터 대대적인 개보수 확장 공사를 한 뉴욕 현대미술관(MoMA)이 10월 21일 재개관을 앞두고, 양혜규의 대형 신작을 세계 관객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양혜규는 MoMA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간인 도널드 B. 캐서린 C. 마론 아트리움(The Donald B.

and Catherine C. Marron Atrium)을 무대로 아래에 바퀴가 달린 조각을 움직이면, 몸체를 둘러싼 방울들이 소리를 내는 조각 6점과 대형 월 페인팅 작업까지 <양혜규: 손잡이(Haegue Yang: Handles)>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리는 전시 <안은미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무용가 안은미의 무대 공연이 아닌 미술관에서 전시로 만나는 흔치 않은 기회다. 이번 전시는 30년에 걸친 그의 창작 활동을 토대로 제작한 연대기 회화, 설치,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무대와 아카이브 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보는 전시가 아닌 관객의 참여를 이끄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전시 기간에 걸쳐 펼쳐질 프로그램 '안은미야'는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몸춤', 리허설하는 몸이 표현하는 '눈춤', 강연과 토론을 나누는 '입춤'으로 구성된다.

한편 2012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올해의 작가상>이 시상제도 개최 이래 최초로 후보 작가 4인을 모두 여성으로 선정해 화제다. 주인공으로 선정된 김이영은 한국 근현대사, 석유 정치학, 영토 제국주의, 자본과 정보의 이동 등을 주제로 영상, 퍼포먼스, 텍스트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지속해온 작가다. 박혜수는 집단에 내재한 무의식과 개인의 기억, 삶의 가치를 가시화한 작업을 선보여왔으며, 이주요는 일상의 특정한 조건, 상황, 사건으로부터 겪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제로 한 설치 작업에 천착해 왔다. 홍영인은 '동등성'이라는 개념을 질문하며 이를 예술로 실천하는 방식을 모색하면서 퍼포먼스, 드로잉, 자수, 사운드 작업과 접목해왔다. 오는 10월 12일부터 열리는 전시 <올해의 작가상 2019>를 통해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작가들 대부분은 후원금을 통해 신작을 제작, 발표하기 때문에 수상자 1명보다 후보자 4명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다. 또 11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국 출신의 텍스트 작품의 대가 제니 홀저(Jenny Holzer)의 개인전도 열릴 예정이다. 이 시대를 향한 여성 예술가의 파워풀한 발언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듯하다.

\*호경윤은 아트 저널리스트로 월간 <아트인컬처> 편집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확장과 지속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미술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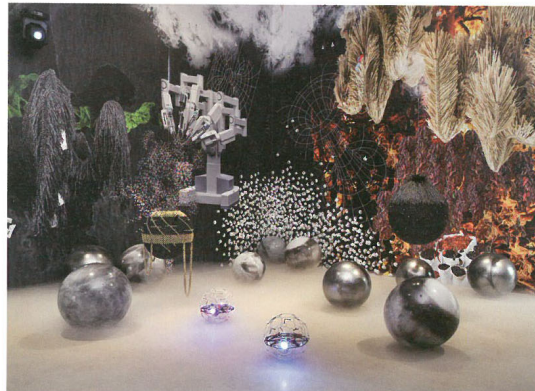
①

양혜규 : 서기 2000년이 오면

기간 9월 3일~11월 17일  
장소 국제갤러리  
문의 [kukjegallery.com](http://kukjegallery.com)

Barbara Kruger : Forever

기간 6월 27일~12월 29일  
장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문의 [apma.com](http://apma.com)



양혜규는 1971년 양혜규: 서기 2000년이 오면 전시전경, 국제갤러리, 서울, 2019,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사진 단천호



Barbara Kruger, Untitled(Forever), 2017, Digital print on vinyl wallpaper, dimensions variable(570 x 2,870 x 1,830cm), 이미지 제공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사진 정하승